



##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설화고(說話考)

Legends on Chan-gi-pa-rang-ga

---

저자  
(Authors)

최철

출처  
(Source)

[동악어문학 10](#), 1977.9, 47-61 (15 pages)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10](#), 1977.9, 47-61 (15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악어문학회](#)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2486>

APA Style

최철 (1977).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설화고(說話考). 동악어문학, 10, 47-6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4 11:1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讚耆婆郎歌 說話考

崔 喆

## ①

현재 전해지고 있는 ‘三國遺事’ 所載의 詞腦歌들에 대하여는 이들 노래들이 만들어진 說話에 관한 背景譚이 있다.

新羅의 歌謠를 비롯한 한국의 古代 詩歌를 이해하는데 있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 노래를 둘러싼 背景說話의 온당한 풀이와 이해가 없이는 作品의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詞腦歌의 경우 語學的인 주석과 해독을 벗어난 문학적인 연구에 있어 이들 노래를 둘러싼 배경 설화의 존재란 참으로 귀중한 것이라 지적하고 싶다.

新羅歌謠 연구에 있어 더우기 문학적인 고찰인 경우 단지 노래 하나만을 놓고 볼 때에는 평가와 이해에 곤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까지 논의된 ‘三國遺事’ 所載의 詞腦歌들 가운데서 오로지 ‘讚耆婆郎歌’ 만은 그 노래가 만들어진 關聯 說話가 전혀 없는 것으로 指摘되었다.

忠談師가 어떤 緣起에서 耆婆郎을 讚美한 노래를 지었는지의 그 사연이 일체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일컬어져 왔다.

필자는 유독 ‘三國遺事’ 기록 중에서 ‘讚耆婆郎歌’ 만이 그 創作 설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1973년 국어국문학회 주최의 전국발표대회에서, 우선 이에 관한 단편적이거나 疑訝한 점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

이제 本稿에서는 그 때 발표 내용과 아울러 未治했던 문제들을 다시 정리·보완해서 발표하기로 한다. 특히 ‘讚香婆郎歌’의 背景說話를 보는데 있어 이와 관계되는 月明師의 2作品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一然의 신라 가요 채집 태도의 일면을 微明해 보기로 한다.

## ②

‘三國遺事’ 卷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를 분석 검토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景德王이 忠談을 통하여 ‘安民歌’를 얻기까지의 내용과 노래. 둘째는, ‘安民歌’를 얻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讚香婆郎歌’와 그 노래의 內容.

셋째는, 景德王이 表訓大德을 통하여 惠恭王을 얻기까지의 과정 얘기가 소상히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를 검토할 때 둘째번의 ‘讚香婆郎歌’의 內容과 惠恭王의 出生譚은 하나로 묶어볼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본다.

이 노래 명칭에 대하여는 ‘三國遺事’ 기록에는 ‘讚香婆郎 詞腦歌’ 또는 ‘讚香婆郎歌’라고 불렀고, 小倉進平씨나 梁柱東 선생도 다 같이 ‘讚香婆郎歌’라고 불렀다. 필자도 이에 따라 좃기로 한다.

문제의 論議를 위해, 우선 ‘三國遺事’ 紀事 중에서 ‘讚香婆郎歌’와 특별히 관련되어지는 조목만을 뽑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저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를 보면, 먼저 景德王이 忠談師를 통하여 ‘安民歌’를 얻기까지의 과정담이 소개된다. 이런 背景說話 중에서 注目되어지는 대목은 다음과 같은 몇몇 귀절을 들 수 있다.

“왕이 말씀 하기를 내가 예전에 들길 忠談師가 지은 香婆郎을 기린 노래가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하먼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나?”

“그리 합니다””<sup>1)</sup>

이 기록과 아울러 그 아래에 “讚耆婆郎歌曰”이란 題로써 노래의 內容이 소개된다. 그리고 연달아 王께서 表訓大德을 시켜 惠恭王을 얻기까지의 과정담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讚耆婆郎歌’를 소개한 노래의 내용 아래 연달아 惠恭王의 출생담이 소개되는데, 이것이 ‘讚耆婆郎歌’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與否. 아무런 有關性이 없는데 하필 작품 밑에 연달아 기록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三國遺事’를 찬술한 一然의 편집 태도와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 項에서 특히 月明師의 ‘兜率歌’와 ‘祭亡妹歌’를 서로 견주어 봄으로써, 그 解決點을 摸索하기로 한다.

### ③

‘讚耆婆郎歌’와 有關시킬 수 있는 ‘三國遺事’의 기록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 (1) ‘讚耆婆郎歌’는 忠談師의 작품으로 景德王 24년에 지은 ‘安民歌’보다 먼저 지어진 것이다.
- (2) 景德王 자신이 ‘讚耆婆郎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노래는 당시 사회에 널리 알려진 내용의 노래였다.
- (3) ‘讚耆婆郎歌’의 歌意는 매우 높다고 하였는데, 이 “매우 뜻이 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점은 이 작품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문제점을 示唆한 것이라고 하겠다.
- (4) ‘讚耆婆郎歌’가 그 뜻이 높듯이 ‘安民歌’ 역시 이와 同系로 뜻이 높은 노래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景德王은 忠談師에게 말하기를, 師가 南山 三花嶺 彌勒世尊에게 다리어 받친 차와 같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없겠는가(烹茶 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 而還矣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

注 1) 一然: ‘三國遺事’ 卷二 “王曰 朕嘗聞師 讚耆婆郎 詞麗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 然”

乎)? 그리고 ‘讚耆婆郎歌’와 같이 뜻 높은 노래를 짓기 위해 지어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곧 ‘安民歌’이다(朕嘗聞師 讚耆婆郎詞謠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 王曰 然則 爲朕作理安民歌 偈應時奉勸歌 呈之).

이같은 사실은 곧 ‘讚耆婆郎歌’와 ‘安民歌’가 다 같이 매우 意味가 깊은 同系의 내용을 가진 노래임을 지적한 것으로,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判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 뒷면에 숨어 있는 歌意만은 딱 뛰어난 깊은 맛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5)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이 작품에 대한 문학적인 해설과 평가이다. 新羅歌謠는 노래 자체만으로 볼 때에도 그 표현 技法과 修辭에 있어 고도한 면모를 찾아 볼 수 있으며, 더욱 原型의인 追究에 있어 상징성의 문제는 크게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아울러 說話가 갖고 있는 原型에 대한 探求와 摸索, 現代의인 의미의 해석, 이러한 문제들은 古詩歌들이 갖고 있는 作品과 背景說話라는 對立的인 관계의 유대를 입증한다고 본다. 背景說話의 올바른 해석과 규명은 작품 해석에 좋은 示唆性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6) 마지막으로 “讚耆婆郎歌曰”에서 보여진 노래 作品과 그 밑에 연달아 기록된 惠恭王의 出生譚은 “景德王·忠談師 表訓大德”이란 같은 條項으로서 ‘安民歌’와 ‘讚耆婆郎歌’를 설명한 背景譚의 관련 說話라고 본다.

以上에 소개한 6가지의 사실은 ‘三國遺事’ 卷 2의 ‘景德王·忠談師 表訓大德’ 條에서 ‘讚耆婆郎歌’와 특별히 연결되는 점이라 본다. 좀더 문제의 核心을 하나 하나 검토해 보기로 한다.

‘三國遺事’ 기록에 의하면 忠談師가 지은 두 노래 가운데 어디까지나 중심이 되는 것은 ‘安民歌’이다. 다만 ‘安民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讚耆婆郎歌’가 보여진다. 이런 사실은 ‘朕嘗聞師 讚耆婆郎詞謠歌’란 귀절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노래의 內容面으로 볼 때 ‘安民歌’는 治國세 관한 理道를 救하는 거국적 政治 理諭을 내포한 것임에 비해 ‘讚耆

‘婆郎歌’는 사사로운 한 個人的 높은 人格을 讚美한 노래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곧 그 創作 說話를 具體化 시키지 않은 理由 중 하나라고 본다. 이런 과정은 以下에서 설명될 月明師의 두 노래에서도 充分히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은 ‘讚者婆郎歌’의 歌意가 어떤 緣由에서 그 뜻이 높다는 것일까. 적어도 一國의 王의 말 가운데에, 歌意가 深高하다는 점은 간단한 뜻만은 아니리라고 본다. ‘安民歌’가 뜻이 높다는 함은 前記한 바 治國의 理法을 알려준 것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讚者婆郎歌’의 경우는 좀 異色의이다. 이 노래는 周知하는대로 耆婆라고 하는 한 人物의 人됨을 극히 讚美한 것이다. 그런데 이 ‘耆婆’라는 人物이 과연 어떤 人物인가는 現存 문헌에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노래의 內容을 검토할 때 그 人物은 癖이나 尊貴하고 孤費했던 人品임을 알 수 있다. 詩歌에서의 魂구름을 헤치며 나타난 달, 파란 냇가의 조약돌, 서리를 모르는 잣나무에 각기 비유되었던 점으로 보아, 그 人物의 行실, 모습, 그리고 人品이 감히 따를 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忠談과 같은 護國의 大臣이 가슴 아파서 哀悼했다는 점은 郎의 人物이 국가에 심상치 않은 큰 人物이었음을 나타낸 것이라 본다. 金善琪교수가 이를 金耆<sup>2)</sup>로 본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겠으나, 하여간 그와 같은 국가에 큰일을 한 역사적 人物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三國遺事’의 기록을 볼 때 그것을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로만 본 나머지 그 사건 하나 하나에 지나친 역사성을 부여하는 것에는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더욱 ‘三國遺事’ 속의 人物名들은 그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완전한 說話上의 架空人物들이 있음을 생각하여야 된다. 說話의 歷史化 과정에 따라 물론 그 人物들이 歷史上에 실존했던 人物들로 부각되어질 경우도 있지만, 說話를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原型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 보겠다. 지나친 歷史化 과정 <說話의 歷史化 歷史的 事實의 說話化等>에만 치중할 때 金善琪교수 所說과 같은 ‘三國遺事’ 속 人物에 관한 摸索

注 2) 金善琪; ‘향가의 새로운 풀이’ 現代文學, 권 147, pp.294~295, 1967. 3.

작업이 試圖되리라 본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논자의 主觀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주어질 수는 있으나, 說話 속의 人物을 歷史的 事實 속에서 찾으려는 모색과정이란 說話의 속성과는 떨어진 특히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는 동떨어진 작업이라 하겠다.

‘讚蒼波郎歌’ 속의 蒼婆郎은 과연 어떤 人物이었을까, 하는 문제는 노래 가운데에 보이는 그의 人品을 볼 때, 후대 사람이 따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품성을 지닌 人物이다. 金善琪교수가 前記한 ‘향가의 새로운 풀이’ (現代文學 147)에서 당시 侍中 벼슬을 하던 金贊로 본 점은 그가 王의 총애를 받던 重臣임을 지적한 글로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우선 나라의 重臣임은 생각할 수 있다.

梁柱東선생은 蒼婆郎의 원 뜻을 설명해 ‘긴목숨’<sup>3)</sup>으로 보았다. 字源的인 해석을 볼 때에도 ‘참, 란 ‘늑은이, 스승, 위대한 인격자’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래 살라는 긴 목숨을 회구하는 뜻에서 作名될 수 있는 글자라 하겠다.

現傳하는 신라가요를 볼 때, 그 내용의 글자(主題)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겠지만 한가지 뚜렷한 점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發願·希願이라는 욕구 달성을 내포하고 있다. ‘安民歌’에서의 景德王도 어떻게 하면 나라가 편안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念願이다. 善明의 ‘千手大悲歌’, 月明師의 ‘兜率歌’, 融天師의 ‘擘星歌’, 永才의 ‘迦賊歌’, ‘處容歌’, ‘願往生歌’, ‘磬童謠’, ‘風謠’, ‘獻花歌’ 등 일련의 신라가요 등에서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는 發願의 一面을 알아 낼 수 있다. 혹 노래의 作品上에는 그 발원 과정이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背景說話를 견주어 볼 때에는 그러한 정도를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磬童謠’나 ‘獻花歌’에서 그런 實例를 찾아 낼 수 있다.

一然의 ‘三國遺事’ 기록 중에서, 특히 詞體歌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惠恭王의 출생에 관련된 발원 과정을 왜 넣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讚蒼婆郎歌’를 소개하는 作品 밑에 계속해서 惠恭王의 출생을 위

注 3) 梁柱東: ‘古歌研究’ p.391

한 景德王의 發願——表訓大德을 시켜 天帝와의 교섭에서——이 결들여진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惠恭王의 出生譚은 ‘讚者婆郎歌’와의 別項에서 다뤄져야 마땅하다.

필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각한 결과, 景德王이 王世子를 얻기 위한 발원과정과 ‘讚者婆郎歌’와는 여러 가지면에서 有關되어지는 것이라 본다.

‘讚者婆郎歌’의 歌意에서 먼저 관심이 가는 것은 이 노래가 죽은 者의 人格을 讚美한 一種의 죽은 한 人物의 讚歌라고 본다. 그것은,

“아으 잣사가지 노파 서리 모를 花判이여”라는 대문에서도 능히 알 수 있지만, 次述되는 ‘祭亡妹歌’와의 관계에서——然의 편집태도——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가의 重臣인 耆郎이 죽었는데, 그의 人格 높음을 讚歌한 內容, 이것이 곧 王 앞에 忠談師 자신이 매우 뜻 높은 노래라고 自認했을진대, 그것은 예사 人物이나 事件이 아닌 것이다. 또 그와 같은 정도의 뜻 높은 노래가 ‘安民歌’임을 생각할 때 이 노래의 깊음이 있다고 본다.

忠談師는 耆郎의 죽음을 꺾이나 마음 아파했던 것 같다. 그것은 그의 人格 됴됨이가 훌륭했던 점도 있으나, 王에게는 뒤를 이을 王世子가 당장 없었던 점이 더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惠恭王의 출생과정을 볼 때 王은 後繼者를 몹시 마음 속 깊게 苦憫했던 것 같다. 그런 사실들은 신체적인 缺陷과(王 玉莖 長八寸) 後妃 滿月夫人을 맞이하였다는 사실(滿月이란 자체가 出成과 有關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月이 갖고 있는 出成象徴을 생각할 수 있다.), 表訓大德을 시켜 上帝께 請하여 王世子를 불러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求女 即可 男即 不宜…然爲男則 國殆矣). 결국 나라는 어지럽더라도 後繼할 王世子를 얻게 되는 과정이 소개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자식이기에 景德王으로서는 더욱 마음 속에 不安과 번민이 생겼을 것이다. 더욱 景德王 때라 하면, 王을 중심으로 한 親王黨派와 王의 政策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든 反王黨派의 그룹이 형성되었

었다. 이런 정치적 성격의 파벌은 景德王 16年 9州를 비롯한 地方郡縣의 명칭을, 王 18年에 中央官府의 명칭을 漢式으로 고친 것을 제기로 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景德王으로는 後繼할 자식마저 없었을 때, 왕당파와 반왕당파와의 파벌간 대립은 極에 달했다고 본다. 오늘날 전해지는 景德王 때의 신라가요, 곧 ‘兜率歌’와 ‘安民歌’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형성된 노래임을 알 수 있다.

景德王이 믿었던 重臣의 耆婆郎이 죽고 後繼할 자식마저 없었을 때, 王의 주변에 번지는 金思仁·金良相 등을 중심한 반왕당파의 문제, 이런 背景 속에서 王의 발원이란 죽은 耆婆郎과 같은 위대한 人格을 갖춘 人物의 出現이었다고 본다. 이와같은 점에 逢着할 때, ‘讚耆婆郎歌’는 景德王의 王世子의 人格됨을 祝願하는 마음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본다. 王世子(혜공왕)의 출생 관계의 기록 앞에 ‘讚耆婆郎歌’를 記載한 것은 앞으로 출생할 王世子의 장래를 祝願하는 뜻에서 서로 관련 지은 것이라고 본다. 耆郎과 같은 위대한 人格과 긴 목숨을 갖고 오래 오래 살라는 뜻이 內在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耆’라는 뜻으로 볼 때에도 ‘老’——오래 살라는 긴 목숨——이라는 壽命과, ‘日’——至尊한 人物, 곧 王——이라는 絕對 君主를 내걸은 象徴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三國遺事’의 기록 가운데서 景德王 자신이 ‘讚耆婆郎歌’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노래 뜻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 등은 이와 같은 緣起에서 말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욱 王 자신이 노래의 뜻 높음을 認得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 작품의 내용이 사사로운 個人的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理世之道를 밝힌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노래의 作者 역시 忠談之師라 名命했던 것이 아닐까?

‘讚耆婆郎歌’의 創作 說話가 곧 惠恭王의 出生과 有關되어진다고 보는 論理的 根據로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볼 수 있다.

現傳하는 詞牘歌를 볼 때 景德王 때의 作品 중에서 ‘兜率歌’·‘祭亡妹歌’와 ‘安民歌’·‘讚耆婆郎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같은 시

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아울러 한 작자가 각기 두 편씩의 작품을 썼다는 사실, 그리고 一然이 한 條項 밑에서 각각 두 작품을 기록했다는 점을 통해 詞腦歌를 채록하는 태도를 알아 보는 일이다. 月明師의 두 작품과, 忠談師의 두 작품은 서로 꼭 같이 짝지워지는 同系の 노래다.

또한 ‘讚耆婆郎歌’와 ‘祭亡妹歌’는 다 같이 죽은 이에 대한 哀悼의 情을 표시한 讚歌임에 비해, ‘兜率歌’와 ‘安民歌’는 治國에 關한 理道를 밝힌다는 데서 흥미있게 짝지워진다.

‘三國遺事’ 편자인 一然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비록 죽은 사람에 대한 哀悼의 讚歌들이 먼저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각 편 of 的 서술과정에서는 譏國의 노래를 앞세웠던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볼 때, 月明師와 忠談師의 代表的인 作品으로 부각시킨 것은 ‘兜率歌’와 ‘安民歌’인 것이다. 餘他的 各 한 수에 대해서는 “明 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 祭之”라던가, “朕嘗聞師 讚耆婆郎詞腦歌”식으로, 서술에 있어 부수적인 것으로 삼았다고 본다.

좀더 具體的인 면에서, 月明師의 2 작품과, 忠談師의 2 작품을, 그것을 기록한 배열 및 그 태도를 構造的인 면에서 檢討해 보고자 한다.<sup>4)</sup>

첫째로,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安民歌)

“景德王 十九年 庚子 四月朔 二日並現 挾旬不滅.” (兜率歌)

이 2 노래가 지어진 說話 가운데 初頭에 보이는 이와 같은 현상은 나라의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暗示한 것이다.

“五岳三山神”이나 “二日並現”의 현상이 꼭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詳考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 사회·정치적 구조를 볼 때 나라에 심상치 않은 不吉한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五岳은 東·西·南·北·中央의 五方位에 있는 山을 말하는데, 新羅의 五岳은 吐舍山·鷄

注 4) 一然; ‘三國遺事’ 卷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條外, 卷五 月明師 兜率歌 條를 비교 검토.

龍山·太白山·父岳으로 主山이다. 三山은 奈歷(慶州)·骨水(永川)·穴禮(清道)를 일컫는데, 곧 이들 五岳과 三山の 神이란 新羅 全土를 말아 다스리는 핵심적인 地位라 하겠다. 그런데 이들 神들이 殿庭에 出現하였다는 사실은 나라에 不吉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暗示한 것이다. 神들의 출현이란 예사로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태롭다거나 위급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현상이다. 景德王 17年에서 24年까지의 天文志를 ‘三國史記’를 통해 알아 보는 일이 한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17년 王子가 태어난 직후 큰 雷電이 있어 佛寺 16개소가 벼락을 맞다.

\*18년 彗星이 나타나 가을에 이르러 없어졌다.

\*19년 正月 都城 寅方에서 소리가 나는데 못사람들이 귀신의 북소리라고 하였다. ‘三國遺事’에는 二日竝現의 權變이 일어남.

\*20년 1月 1日 무지개가 해를 껴있는데, 해 귀고리가 되었다. 4月 彗星이 나타남.

\*22년 7月 大風이 일고, 8月 桃李가 피었다.

\*23년 3月 慧星이 作變, 12月 11日 流星 여럿이 나타남.

\*24년 4月 지진이 있었다. 6月 流星이 心星을 犯했다.

‘兜率歌’의 背景 說話의 初頭に 보이는 二日竝現의 현상도 ‘安民歌’의 諸神들의 출현과 같은 類型的의 기술이라 본다.

二日竝現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景德王 19年 때의 정치·사회적 불안을 說明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필자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글에서” 景德王 18년에 中央官府의 명칭을 漢式으로 고친 것을 계기로 하여 王權에 대한 반감과 파벌이 형성된 것으로 풀이했다. 景德王의 의도는 실서가 정연한 中國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專制主義 政治體制를 굳히려고 한 데 있었고, 이런 王의 정책이 귀족들의 반감과 異議를 삼으므로 해서 신라의 政治社會는 자연 2 개의 파벌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

注 5) 拙稿: ‘新羅歌謠와 그 作品 研究’ 人文科學 27·28輯, 延世大, 1972.

다. 二日竝現의 현상이야말로 이러한 王權을 둘러싼 두 파벌간의 극심한 상황을 說明한 것으로 본다. 金思仁, 金良相, 萬宗은 反王黨派의 人物들로 볼 수 있고, 信忠, 金崑, 李紘은 王黨파라 하겠다. 反王黨派의 搥頭로 인하여 王이 신변상 위협을 느끼게 된 현황을 二日竝現으로 상징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여간 ‘安民歌’와 ‘兜率歌’는 이와 같은 政治·社會的인 背景에서 기록되었다는 데 그 작품의 한 속성이 파악되리라 본다.

景德王은 이와 같은 정치적 변혁에 관하여 不安感을 갖게 되었으며,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人物을 모색한다. 그 人物은 이러한 변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등장된다.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僧曰 忠談 (安民歌)  
駕幸靑 陽樓望緇僧……月明師 (兜率歌)

景德王은 국가의 安危와 관계되는 大事를 처리하기 위해 각기서 忠談과 月明이라는 僧侶를 부른다. 2 작품의 기술 순서는 동일한 方法에 의하여 기록된다.

景德王은 歸正門과 靑陽樓에 올라 이 사태를 해결지을 僧侶를 기다린다. 僧侶가 오는 방향은 모두 南쪽으로 되어 있다. 南山三花嶺·阡陌之南路란 四天王寺가 있던 護國의 道場을 일컫는 곳이다. 文武王 때 南쪽 神遊林에 四天王寺를 짓고 護國의 道場을 개설하였다. 과연 그 후에 2 차례에 걸쳐 唐軍의 침입을 받았으나, 모두 風浪에 의해 唐船을 침몰시켰던 일이 있다. 그 후 四天王寺는 彌陀道場이라 하여 護國神을 모시는 도장으로 되었다. 이것은 角干 金天會의 말에 따라 金虎王이 明郎의 龍宮秘法을 받아 세운 것이라 한다.<sup>6)</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 月明師나 忠談師가共に 四天王寺의 護國神에게 나라의 太平을 위해 기도를 드린 護國의 忠臣임을 認知할 수 있다. 두 僧侶

注 6) 一然; ‘三國遺事’ 卷二, 文虎王 法敏

가 南쪽에서 온다는 사실은 이런 사실을 간접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安民歌’의 경우에는 더욱 뚜렷하게 설명되어진다.

三月三日 南山 三花嶺의 머록세존에게 茶를 다려 드리고 온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세째로, 노래를 지은 動機가 자기 王命에 의하여 이룩된다는 점이다.

\*“然則 爲朕 作理安民歌 俗應時奉勸歌 呈之, 王佳之.” (安民歌)

\*“既卜緣俗 雖用鄕歌可也, 明 乃作兜率歌 賦之.” (兜率歌)

나라에 위급한 사태가 일어나고, 또 이것을 해결한 人物을 모색하는 과정, 그리고 이어서 王은 노래 짓기를 請한다. 노래의 內容은 물론 나라의 平安과 안정을 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진다.

네째, 노래의 內容에 소개 된다. 그 노래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온해질 것이라는 대체적인 理法을 밝힌 것으로 일종의 발원이라 하겠다.

다섯째, 一然은 ‘三國遺事’를 기록하는 데 있어 어디까지나 政治的·變革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月明師와 忠談師의 자기 2 작품들을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民歌’와 ‘兜率歌’를 主軸으로 삼고, 이에 부수되는 종적인 관계에서 ‘讚耆婆郎歌’와 ‘祭亡妹歌’를 說明했다. 곧 이들 노래에 대한 면모를 가별게 취급하여, “朕嘗聞師 讚耆婆郎詞臘歌”, “明 又嘗爲亡妹營齋”로 이와 같은 作家(師)와 작품들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만을 例示할 뿐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注目할 점은 ‘讚耆婆郎歌’와 ‘祭亡妹歌’가 ‘安民歌’나 ‘兜率歌’보다 자기 먼저 지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共に 條項은 다르지만 같은 方法과 記述 順位, 構造임을 알아 둘 일이다.

노래의 內容을 기록하는데도, “讚耆婆郎歌曰”, “歌曰(祭亡妹歌)로 되어진다.

여섯째로, 특별히 유의할 점은 ‘三國遺事’ 卷五 “月明師 兜率歌”條의 內容은 景德王이 月明師를 통해 ‘兜率歌’라는 작품을 請해 얻고, 그 과정에

서 師의 前 작품인 ‘祭亡妹歌’가 아울러 소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三國遺事’ 卷二의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도 王이 忠談師를 통해 ‘安民歌’를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師의 前代 작품인 ‘讚耆婆郎歌’ 내용이 소개되는 것으로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곧 月明師와 忠談師의 作品들은 기술 태도에 있어 동일한 構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내용을 견주어 대비해 본다면 이런 관계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리라 본다.

결국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에서 王이 表訓大德을 통해(上帝께 請하여) 惠恭王을 얻어 後繼하게 되는 얘기는 別項의 독립된 사건 기록이라기 보다는 ‘讚耆婆郎歌’의 說話譚와 관계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一然의 기록 태도에서 특히 月明師의 2 작품과 견주어 볼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참고로 ‘讚耆婆郎歌’의 說話라고 보이는 惠恭王의 出生譚을 검토해 보면,

- ① 景德王은 신체적 결함(玉莖 長八寸)으로 자식이 없다.
- ② 後妃도 滿月夫人을 맞는다는 사실.
- ③ 表訓大德을 통하여 上帝께 請해 後繼할 자식을 願함.
- ④ 여러가지 어려움 끝에 나라는 어지럽더라도 王世子를 얻음.
- ⑤ 上帝의 말대로 國亂이 일어나 나라는 망하게 됨.

以上の 惠恭王 出生譚을 ‘讚耆婆郎歌’의 背景 說話라고 규정 짓고자 하는 점은, 前記한 ‘三國遺事’의 기록 태도에서도 짐작되지만, 內容의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詞腦歌란 一種의 發願·祝願의인 要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詞腦歌의 속성을 규정하여 一種의 發願(希願)이라 할 때, 이 문제는 王世子の 출생이라는 커다란 사실과 耆婆郎이라는 人物의 뜻 높음을 관련 지을 수 있다. 곧 앞으로 출생할 王子를 祝願하는 뜻에서 耆婆郎의 人格 높은 讚歌를 앞세웠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면서 王世子の 壽命까지 오래 살도록 기원한 것이다.

현재 전하는 ‘三國遺事’ 속의 詞謠歌 중에는 그 대다수가 發願의 內容을 갖고 있다. ‘願往生歌’, ‘千手大悲歌’, ‘愚賊歌’, ‘慧星歌’, ‘怨歌’, ‘童謠’, ‘獻花歌’ 등도 노래의 內容에서 또는 背景說話에서 강력한 發願(祝願)의 형태를 찾아낼 수 있다.

결국 ‘讚耆婆郎歌’는 장래 출생할 王世子를 위한 發願으로서, 그 대상을 耆婆郎의 人格에다 견주었던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耆婆郎’의 人物됨을 알기 위해 ‘讚耆婆郎歌’의 作品을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노래에 관하여 梁柱東선생은 ‘新羅歌謠의 文學的 優秀性’에서,

그 恣想天外의 詩法! 작자는 耆婆郎이란 짝은 花郎長의 드높은 人格과 理想, 志操를 기립에 있어서 한 마디도 그것에 직접 言及함이 없이 恣연히 虚空撰出의 말과의 問答體를 빌어와 前8句에서 그것을 은연중 譬喻로 傍叙하고, 結二句에서 잣가지를 빌어 그것을 正叙했다.<sup>7)</sup>

그리고 梁朴사는 이 작품의 구조를 作者 忠談과 달의 問答體로 되어 있다고 해석 했다. 이 문제에 대하여 金烈圭와 李在銑은 직접적인 對話로 看做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곧 忠談과 달의 劇的인 對話의 形態가 되기에는 아무래도 뚜렷한 話者의 變化가 있어야 하겠고, 동시에 달이란 對象을 부르는 呼格的인 Invocation이 必要할 것이다.<sup>8)</sup>

이 詩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耆婆郎의 人物됨을 달[月]·江·石·柏·花로 견주어 그의 人格 됴됨이를 높게 評價하였다. 또한 이의 상징성을 보는데 달과 구름, 강물과 조약돌, 잣나무와 서리의 對立的인 構造로 이 詩歌가 지니고 있는 면모를 해부 설명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단편적인 것이나마 本篇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달은 地上과 天上의 인도자로서 反射性과 久遠性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 특히 원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달의 모습이란 조출하고 청초한 品性을 나타낸 것이라 보겠다.

注 7) 梁柱東; ‘評說一首’ ‘新羅歌謠의 文學的 優秀性’ 古歌研究, p.888

8) 金烈圭등; ‘怨歌의 語文學的 研究’(西江大) p.169, 1972

江물 속에 반사되어 나타난 耆郎의 모습이란 앞의 聯에 보이는 흰구름을 헤치며 나타난 耆郎과 서로 짝지어 지는 것으로 反射鏡과도 같은 구실을 한다. 前聯과 맥락을 연결 짓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하겠다.

잡나무란 不變하는 久遠性を 표현한 것이다. 더욱 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리라는 媒體를 등장시켜 그의 굳굳하고 힘센 모습을 表象한 것이다. 生命의 영원성을 암시한 표현 기교라 하겠다.

‘讚耆婆郎歌’의 文學性, 주로 상징과 表現技法에 대하여는 본고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따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끝으로 ‘讚耆婆郎歌’는 한 人物을 讚美한 英雄詩歌와 同軌로서 宗教的인 儀式歌의 속박을 벗어난 抒情歌謠로서의 면모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耆郎의 生前 보다는 死後에 그 人物됨을 찬양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노래 자체의 성격에서도 엿보이지만 아울러 一然이 ‘三國遺事’를 편집한 태도, 곧 ‘兜率歌’·‘祭亡妹歌’와, ‘安民歌’·‘讚耆婆郎歌’의 서술 태도에서 알 수 있다. ‘祭亡妹歌’와 ‘讚耆婆郎歌’는 모두 死後 人物에 대한 讚揚이라는 데에 共通點이 발견된다.